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후보간 신경전 격화

양부남 “거짓 선동 중단을”
강위원 “관행·구태 없애야”
권리당원 비중 확대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후보들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현역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원외 인사인 강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상임대표의 ‘광주시당 선관위 중립성 의문’ 발언에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경고했고, 강 대표는 “관행·구태를 선택한 기득권 세력을 비판한 것”이라고 맞불을 놔다.

양 의원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강 대표가 광주 국회의원 전체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당원이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갈라치기하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정당한 당헌당규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당 선관위를 ‘8개 지역위원장 추천 인사’라고 주장한 것 또한 명백한 거짓이자 선동”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강 대표는 지난 23일 “광주시당 선관위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기대했으나 8개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선관위에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대 후보인 양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지역 선관위 또한 현역 영향력 아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공식 선거 운동을 사흘 앞둔 28일 광주 시내 곳곳에는 양부남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과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붙었다.

나건호 기자

서 나왔다.

선대본부는 최근 강 대표가 광주 국회의원 8명을 기존에 하던 ‘합의 추대’를 통해 양 의원을 후보로 지원했다”며 “정치적 담합과 같은 관행·구태를 비판한 것이다. (상대 측은) 정당 개혁·비전 제시도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반복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원들이 적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당원명부 없는 불공정 경쟁 해결 위해 당원 메시지 발송 2회 보장 △광주시당 주최 TV토론 개최 △규정 위반

이에 강 대표는 반박문을 내고 “이재명

당대표가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역 의원 8명은 기존에 하던 ‘합의 추대’를 통해 양 의원을 후보로 지원했다”며 “정치적 담합과 같은 관행·구태를 비판한 것이다. (상대 측은) 정당 개혁·비전 제시도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반복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원들이 적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당원명부 없는 불공정 경쟁 해결 위해 당원 메시지 발송 2회 보장 △광주시당 주최 TV토론 개최 △규정 위반

후보 강력 제재 등을 광주시당에 촉구했다.

임기 2년의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갈수록 격화하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의 공천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대선을 위한 지역 기반을 다지는 핵심 역할도 한다.

실제 강 후보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2026년 8월 광주시당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자리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도

전남도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 금융시스템 전략 마련”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2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생태계 구축 전략 연구’ 영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구역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전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시스템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기관인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정책 현황 △사회적금융의 국내외 동향 △지역 기반 관계 금융시스템 조성 등 주요 현황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남도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류기준대표의원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생태계 조성에 대한 연구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최종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중간보고회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연구영역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향후 전남도에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류기준 대표의원을 포함해 박선준, 김진남, 임형석, 박원중, 최정훈, 김주용, 진호건, 박종원, 박형대 의원이 소속돼 있으며, 올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지현 기자

야당 과방위원 “이진숙 법적 책임 물을 것”

“법인카드 2배 초과 사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위법·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날 현장 검증을 위해 대전MBC를 방문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의 무단결근을 뒷받침할 근거도 나왔다”며 “사장 결재가 한 달 가량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증빙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용차 하이패스 내역, 호텔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해 후보자의 의혹을 날낱이 추가 검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금요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다”며 “이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野, 방송법 처리… 방송문화진흥법 3차 필리버스터

방통위법 개정안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2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을 활용하면서 토론이 중단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 종결 이후 방송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에는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시작으로 같은 당 정영욱·진종오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이훈기·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

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곧바로 MBC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BS 이사 수를 늘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전망이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의 상정으로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 의원이 첫 발언 주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24시간 후인 29일 새벽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두관 ‘개딸 점령’ 발언에 정봉주 사과 요구

이재명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8일 김두관 당대표 후보의 ‘개딸 발언’을 놓고 당내 공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충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 부른다.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 상명하복을 하는 모임을 우리는 군대, 조폭, 회사 이런 것처럼 조

직이라고 부르지 당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당이란 무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생각하는 사람, 저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온갖 사람 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들의 차이만큼 크겠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힘이 남으면 맷글이라도 하나 더 쓰고 동네 가서 한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이 나라가 어찌 가야 하는지 토론하자. 우리끼리 안에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더 큰 세상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앞서 정봉주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김두관 후보에게 ‘개딸 발언’을 사과하라

고 요구했다. 김 후보가 전날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당이 개딸에 점령 당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충북 연설회에서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옛날 북한과 대결해야 하니까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탄핵이 우선이니깐 당내 다른 목소리가 필요없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며 “다른 목소리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당에 미래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왜 항간에 ‘당심 필패 민심 필승’이란 말이 나오겠냐”라고 쏘아붙였다.

뉴시스